Entertainment p/16

몰래 1000만원 기부한 아이유

메트로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CRAFT TREND FAIR SEOUL 2012

2012 공예트렌드페어

Rediscovery! Craft and Locality

재발견, 공예와 지역성

COEX Hall A1. A2. A3.
DEC. 21-24, 2012
11:00am - 7:00pm

전시구성

2012 주제관 Special Exhibition: Rediscovery! Craft and Locality
KCDF 사업홍보관 KCDF Promotion Exhibition
산업관 Craft Markets
지방자치단체관 Local Autonomous Entity
참여공방관 Craft Workshops
해외초청관 International Exchanges

부대행사

국제세미나 : 세계적 시각 공예의 지역성
일시 12월 22일(토)
Suwan Kongkhunthian(태국 Yothaka 대표)
Tran Tuyet Lan(베트남 Craft link 디렉터)

2012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홀 A1, A2, A3
12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2012 공예트렌드페어 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02 398 79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CDF
협찬 후원

강추위에 패딩·내의 '불티'

메트로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제2624호 www.metroseoul.co.kr

남자 꽃대 꺾은 가요계 여풍

"중산층 70%" vs "품격의 정치"

박근혜·문재인 첫 TV토론부터 전방위 격돌
이정희 "박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5일 앞두고 첫 TV토론이 열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4일 오후 8시부터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박·문·이 후보는 먼저 모두 발언에서 각각 '약속' '말 권위' '친서민'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 후보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향해 "대선 이후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한다"며 맹공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4대강 반대 예결위 텐트농성 당시 민주당 의원이 보수언론 기자에게 책선물을 하면서 10만 원권 수표 촌지를 끼워넣은 것을 봤다"며 "당선 이후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문 후보도 조준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실정치에 투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싸움하고 대립하는 정치를 바꿔 상생과 통합의 품격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득권 싸움과 편가르기를 멈추자"며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으로 중산층 70%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박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 통합의 정치, 깨끗한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제시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보다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문·이 후보는 친인척 비리에 대해 박 후보에게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문 후보는 "MB정부에서 측근 47명이 구속된 새누리당 정권은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홍사덕 전 선대위원장 등과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박 후보의 측근들 중에서도 벌써부터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 후보도 "과거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며 "당선 후 측근비리가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역공에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정무특보 재임 시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 취업한 의혹,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 하에서 드러났을텐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네거티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보에 대해서도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다.

문 후보가 "현 정권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노크귀순 사건 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줄곧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진보정치, 서민대통령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박 후보 대한 대립각을 뚜렷이 했다.

그는 박 후보가 "이 후보는 단일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 후보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김석기·이재연 의원'이라고 잘못 읽었을 때는 "예의를 지켜달라"며 박 후보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채동호기자 ukseon@metroseoul.co.kr

지금은 웃고 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4일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마사정관제' '대전아빠' 있어야 대학 가는 세상

'등골탐' '에듀테크' 등 학부모 고충 담은 신조어 유행

자녀의 대학 입시 성공 여부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경제력에 의해 판가름된다는 등 왜곡된 교육 현실을 꼬집는 신조어가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4일 윤선생영어교실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교육계 신조어는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성적보다 잠재력을 중요한 입시 기준으로 삼겠다던 입학사정관제는 '엄마사정관제'라는 신조어로 탈바꿈했다. 어머니의 정보력에 따른 자녀의 스펙 관리가 대입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카페맘' '아카데미맘'처럼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가의 커피전문점에 모여 사교육 정보를 교환하는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도 유행처럼 번졌다.

아빠 시리즈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상황을 대변한다.

익히 알려진 '기러기 아빠'(부인과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홀로 남은 아버지) 외에도 '펭귄 아빠'(항공료를 아끼느라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아버지), '독수리 아빠'(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재력을 소유한 아버지)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불린다.

형편이 안 돼 외국 대신 강남 소형 오피스텔에 아내와 자식만 유학 보내고 홀로 사는 아빠는 '참새 아빠'로, 강남구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 자녀를 대치동 관내 초등학교에 보내는 '대전(대치동 전세) 아빠'는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라고 할 만하다.

교육에 과도한 경제력을 집중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에듀푸어'는 최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등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비 마련을 위한 '에듀테크'도 성행이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어린이 전용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해 돈을 모으는 재테크를 지칭한다.

대학과 입시 관련 신조어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했다. 과거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데서 비롯된 '우골탑'은 '등골탑'으로 내재됐다. 부모의 등골을 빼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김유리기자 grace@

학부모 열공시대 4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한 교육업체의 입시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패딩·내의 '뜨거운 인기'

이른 강추위에 기능성 초점 맞춘 '불황형 소비' 대세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강추위로 '패딩'과 '내의'가 올겨울 패션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다. 특히 스타일보다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불황형 소비 트렌드로 매출이 부쩍 늘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에서는 올해 신상 다운 패딩 물량이 이미 지난달 40% 이상 소진됐고, 지난해 늦추위로 판매가 부진했던 이월 재고 물량의 판매도 증가했다.

올해는 혹한의 추위가 예고되면서 두꺼운 헤비 패딩이 주력 아이템이 됐다. 충전재 함유량이 높아 통통해 보이지만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패딩의 기세는 신발, 모자 등 방한 패션용품까지 넘보고 있다. 패딩부츠는 가죽·양털부츠를 제치고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패션업체들은 패딩 소재의 모자와 스커트까지 선보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유니클로 히트텍의 히트에 힘입어 '발열 내의' 열풍이 거세다. 이마트에서는 지난 한 달간 발열 내복 매출이 42% 뛰었다. 기능성 원단을 쓴 발열 내의는 기존 내복보다 얇아 평상복처럼 입게 한 디자인이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열 내의 열풍은 비싼 겉옷을 새로 사는 대신 저렴한 내복으로 추운 겨울을 견뎌보려는 불황 소비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pw@metroseoul.co.kr

니트팬티까지 등장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내의매장에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즐겨입는 여성들을 위한 니트팬티가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50㎞ 땅굴 판후 송유관에 구멍 기름 73억 훔쳐

곡괭이와 삽만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송유관에 닿는 길이 50m의 땅굴을 파고 73억원어치의 기름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땅굴을 판 뒤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주변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지난 8월부터 11월 하순까지 휘발유 및 경유 약 400만 ℓ(시가 73억2000만여 원)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유관 주변의 주유소를 구입해 지하에서 송유관이 있는 곳까지 약 50m에 이르는 땅굴을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곡괭이와 삽으로만 팠다. /김종석기자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가격이 1899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값 넉달만에 최저

휘발유 값이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ℓ당 18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현재 주유소 판매 가준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39.46원으로, 8월 7일 1938.70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 들어 휘발유 가격이 1940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1월과 6~7월에 이어 세 번째다. /박상훈기자

토요일부터 식당서 담배피우면 10만원

8일부터 넓이 150㎡ 이상 식당·주점, 커피전문점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건물과 상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실외 공간도 모두 금연구역이다.

흡연을 방지한 음식점 주인은 1회 위반 시 170만원, 2회 위반 시 33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완전히 밀폐된 흡연실을 만들어 이 곳에서만 흡연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 담뱃갑에 '연술' '커피향' 문구 표시도 금지

복지부는 또 '멘솔' '커피향' '모히토' '애플민트' 등 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정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배동호기자

선거공보물 발송 바쁜 손길 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의 우편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마흔살인 당신 얼마나 더 살수 있을까?

男 39년·女 45.4년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1.2년이다. 지난해보다 0.4년, 10년 전보다는 4.7년 증가했다.

남자는 77.6년, 여자는 84.5년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0.4년씩 늘었다. 10년 전보다는 각각 4.8년, 4.4년 증가했다. 출생아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6.8년이었다. OECD 평균인 5.5년보다 높았다.

현재 연령에서 더 살 수 있는 기대여명을 보면 ▲20세 남자 58.2년, 여자 64.7년 ▲40세 남자 39.0년, 여자 45.4년 ▲60세 남자 21.4년, 여자 26.5년 등이었다. 현재 40세 남자라면 앞으로 39년, 40세 여자는 45.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현재 65세인 사람이 앞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남성은 평균보다 3.8년, 여성은 2.0년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가장 긴 곳은 서울 82.7년

시도별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은 서울로 82.7년이었고 다음이 제주(82.2년), 경기(81.7년), 대전(81.3년)이었다. 반면 충북(80.1년), 부산·울산·전남·경북(80.2년)은 기대수명이 짧았다.

/김하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심야택시 11일부터 도입·· 버스도 새벽 1시까지 운행

11일부터 서울 10여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전용 택시가 운행되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의 승차 거부 등이 빈발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개인택시 1475대를 심야전용 택시(표지판에 '개인 9'로 표기)로 운행키로 했다. 주요 대상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역,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역, 명동역, 동대문으로 요금은 일반택시와 동일하다. 또 이 지역(동대문 제외)을 지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 다음날 1시까지 연장 조정한다.

/배동호기자 eleven@

하트하트재단와 아동실명예방사업을 통해 무료 안과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제공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란 뜻의 캄보디아어>

"꼬레, 어꾼 찌란" 함박웃음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아동 실명예방사업
지난해 7월부터 1만2000명 무료 안과수술

"어꾼 찌란(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안과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쓰레이닛(7)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쓰레이닛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 백내장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정얼대기도 하고, 투정도 많이 부렸지만 쓰레이닛의 엄마는 딸을 병원에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상은 어린 소녀에게 슬픔만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하트하트재단 캄보디아 아동 실명예방사업'의 일환인 초등학교 아웃리치 안검진을 통해 무료 안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쓰레이닛은 이제 그토록 읽고 싶던 동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됐다. 무료 안과수술은 쓰레이닛에게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되찾아 줬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세계에서는 1분마다 1명씩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아동 실명의 80%는 조기 개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캄보디아는 인구에 비해 안과 전문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안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간단한 치료 및 처방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안과 질환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www.heart-heart.org)은 지난해 7월부터 암코르어린이병원과 무료 안과수술 및 진료와 지역사회안전강 교육을 통해 캄보디아 아동 실명 예방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아동실명예방사업은 하트하트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구리청과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만2000명의 어린이가 무료 안과수술 및 진료를 통해 시력을 회복했다.

하트하트재단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 실명예방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후원 문의 02)430-2000

/채동호기자 eleven@

文 돕긴 돕는데…

安, 자문단 위원 등 만나 지원방법 논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캠프 해산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만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는 4일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도처의 음식점에서 조용경 단장을 비롯한 전직 국민소통자문단 위원들과 비공개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어제 유민영 대변인이 설명한 발언 내용 3가지(백의종군과 정권교체 기여, 지지자에게 문 후보 지원 호소, 문 후보 지원 방법) 중 앞의 두 가지는 맞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위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 "문 후보와 이념적 차이 느껴"

안 후보는 또 "나는 합리적 보수와 온건 진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념적 차이를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후보는 5일 캠프 국정자문단, 6일에는 전국 각 지역포럼 대표들과 만나 문 후보 지원 방법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grace1004@metroseoul.co.kr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캠프를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 글·그림 박선철

100세 시대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NPS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종류가 있나요?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120월) 이상이면 만60세(단 연도에 따라 다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지급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연기한 1년마다 7.2%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2백 66만여명이고, 평균 수령액은 818,000원입니다.

구분	수령 요건	연금액 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 도달	기본연금액 (50~100%)+부양가족연금액
재직자 노령연금	60세 이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 (50~100%) (50~90%)
조기 노령연금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연금액 (70~100%)+(70~94%)+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서울 소자본 창업 박람회 내일부터 양재동 aT센터

'제6회 서울 소자본 창업 박람회'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80업체 180부스로 구성된 이번 박람회에는 부부 창업, 여성 CEO, 청년창업가를 위한 소자본 창업 박람회로 콘셉트를 변경했다.

이번 박람회는 '파워 1인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창업 박람회'라는 부제를 갖고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본금 500만원 정도로 무점포 창업이 가능한 '온라인 인쇄 편의점', '재무 설계 컨설팅'과 자본금 1000만원 정도의 '컴도시락 특약점', '기반편의점', '세탁조경관리점', 1억원 미만의 미자카야 등이 참여한다.

무료 입장을 위한 사전 접수는 온라인(www.yesexpo.co.kr)을 통해 5일까지 접수받는다.

방송대, 인생선배·젊은 열기 '용광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 나눔·인생 배움' 캠페인 2 환경보건학과 '환경사랑' 스터디

매년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학술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최대 행사다

50여명 열공 '서로가 멘토'…온라인 회원 1400여명
전국 재학생 모이는 1박2일 학술제 졸업생도 참여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 위치한 한 스터디룸에서 활상 웃음꽃이 피어난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얼핏 가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사랑'의 멤버다.

환경사랑은 2004년부터 이어져 온 방송대 환경보건학과 스터디 그룹이다.

이들이 모인 스터디룸은 12평 규모의 작은 강의실 같은 외관을 갖췄다.

학년별로 오가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게시판이 강의실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한쪽 벽에는 선후배가 함께 치른 다양한 행사 모습을 담은 사진이 붙어 있어 초등학교 교실처럼 정답다.

자영업을 하는 총그룹장 정선률(47·4학년)씨는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50여 명이고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회원은 1400여 명"이라고 귀띔했다.

이곳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각 학년별로 오후 7~10시까지 학습 모임이 이뤄진다. 1학년은 공동 수강 과목에 대한 과목별 조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졸업생이나 재학생 선배들이 기존에 정리해 놓은 강의록이나 각종 자료 등을 후배에게 나눠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신입생 환영식을 겸해 매년 3월 서울 근교에서 진행되는 모꼬지는 50여 명이 참여해 방송대의 교육 방식과 스터디 내 학습 방법 등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다. 친목 다지기도 빼놓을 수 없는 옥프다.

학기당 2~4일 오프라인 강의실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교우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환경사랑'의 몫이다. 1학년 대표 윤나경(45)씨는 "환경사랑 스터디가 주축이 돼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쳐니 간식을 제공하고 강의 후에는 함께 뒤풀이를 하는 등 동료들이 친목을 다진다"고 말했다.

전국의 재학생이 1박2일 동안 참석하는 학술제는 환경보건학과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이때는 교수, 졸업생도 참석해 논문 주제 발표, 환경 포스터 제작 및 선정, 학술 정보 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1학년 정지훈(29)씨는 "생각보다 학습이 어렵지만 스터디에서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하니 훨씬 수월하다"며 "모임이 없었다면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그룹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의 멘토가 된다. 인생 선배로서 진로를 조언해주고 젊은 이들의 열기는 학습 분위기를 북돋운다"며 "27일 환경인의 밤을 통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두리기자

공직·민간업체 등 진출…대학원 진학도

■ 방송대 환경보건학과는

문명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했다.

환경보건학과 학습 과정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환경보건 교과목인 기초환경·수질·대기·산업환경·국제환경·보건정부 분야 과목을 중점 배치했다. 이런 학습 과정은 급변하는 환경보건 분야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보건·환경대학원, 보건의료기관, 환경관리기관, 보건직 공무원, 환경직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소, 기타 보건환경 관련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문의: 02)3668-4700
http://env.knou.ac.kr

한옥 많은 혜화·명륜동 '밀집지역' 지정해 지원

서울시는 2013년까지 한옥이 많이 있는 사대문 성곽 인근 혜화·명륜동 일대를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소유자나 한옥 신축 예정자는 신·개축, 보수할 때 시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최대 6000만원, 융자금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동호기자

"상주오디 달력·공책 무료로 신청하세요"

상주오디 캐릭터 '상글이 탱글이'가 새겨진 탁상용 달력과 상상공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상주오디사업단은 2013년도 탁상용 달력과 상상공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탁상용 달력(최대 20부)은 회사와 개인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상상공책은 교사들 위주로 신청받는다.

이벤트는 7일까지 홈페이지(www.smb.or.kr)의 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pun6969@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혁

나사 '중대 발표' 뭔가 했더니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최초로 실시한 화성 토양 검사에서 물과 염소·황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다만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NASA는 덧붙였다. 큐리오시티가 토양을 채취한 지점은 '록네스트'다. 과학자들은 최종 목적지인 샤프산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기 화합물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큐리오시티가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한 곳 /AFP 연합뉴스

미들턴 "12주 됐어요"

영국, 윌리엄 왕세손비 임신 소식에 들썩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이 아빠가 된다.

영국 왕실은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이 임신했다고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왕실 대변인은 "임신 소식에 여왕과 필립공을 비롯한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아들 부부가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이라고만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정말 기쁜 일이다. 이들은 탁월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미들턴은 현재 임신 12주 미만이며 입덧과 탈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세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할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와 아버지인 윌리엄 왕자에 이어 왕실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오르게 된다.

/조선미기자 sosami@metroseoul.co.kr

OD MUSICAL COMPANY, CJ E&M, GANGDONG ARTS CENTER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한국 뮤지컬 10년의 신화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GREASE

Grease!

개막기념
20%할인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2년 12월 1일 – 2013년 1월 20일 | 강동아트센터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BC카드 LOUN.G · 클립서비스 [문의] 강동아트센터 440-0500 · 오픈리뷰 1588-5212

[주최] 강동아트센터 [제작] OD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KOSPI

KOSDAQ

Nikkei (일본)
9432.46 (-25.72)

Hang Seng (홍콩)
21799.97 (+32.12)

Shanghai (중국)
1975.14 (+15.37)

Dow Jones (미국)
12965.60 (-59.58)

EXCHANGE RATE

달러	1083.00
엔(100)	1322.34
유로	1414.51
위안	173.96

커피전문점 큰손은 남성

이용금액 女보다 40% 많아

커피전문점의 주요 고객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 4일 현대카드가 내놓은 950만여 회원의 결제 정보 분석을 보면 남성들의 커피전문점 이용 금액이 여성보다 40% 이상 높았다. 그리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들의 이용금액이 여성보다 컸다.

또 커피전문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이었다.

다른 흥미로운 결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산은 일식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실제 결과는 일식(3.2%)보다 양식(10.3%) 매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았다. /김지성기자

'고객님 이번달에 車보험 만기시네요…' 찜찜한 그 전화 알고보니

보험개발원이 정보 유출

손보사들과 개인신상 공유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오면 여러 보험사에서 전화가 걸려 온다.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만기일을 알았지"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 싶어 기분이 찜찜하다. 이 정보를 유출한 곳은 김영구 원장이 이끌고 있는 보험개발원이었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해 온 것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전이 무색해졌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갖고 있진 않다"면서 "만기 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이 잦다면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제휴 회사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을 동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게임까지 즐기는 은행 4일 한국씨티은행 서울 영등포지점 내 설치된 그린산타 캐디네어 포토존에서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모바일 게임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 일부 지점에서 31일까지 운영한다. /김지성기자

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건축 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 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가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심의 절차가 신설된다. /박성훈기자

한국 손 들어준 IMF 자본이동 직접규제 용인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 정책이 힘을 얻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간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유럽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도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IMF는 4일 새벽 1시(한국시각) 이사회 논의를 마친 후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자본 자유화 기조 하에 자본 이동 관리 방안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아이유 '아이온 속으로'

엔씨소프트 4.0 새 버전 제작발표회…게임 등장인물로 직접 출연

블록버스터 온라인게임을 대표하는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이 톱가수 아이유를 영입(?)했다. '아이온'의 새 버전인 4.0에 아이유 관련 콘텐츠를 대거 가동한다.

아이유는 아이온 유저와 함께 게임 홈페이지에서 대규모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아이온'이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을 기록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초대형 온라인 콘서트가 성사되는 셈이다.

엔씨소프트는 4일 서울 삼성동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아이유, 아이온을 만나다' 4.0 제작발표회를 열고 신규 업데이트 일정과 주요 콘텐츠, 그리고 아이유 콜라보레이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3.0 버전, 올해 7월 3.5 버전에 이어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4.0 버전은 20일 공개 예정이다. ▲서버 확장 ▲새로운 전투 지역 '카탈람' ▲4년 만에 추가되는 신규 클래스 '음유성' 사격성 ▲12개의 신규 인스턴트 던전 등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유가 직접 참석해 자신을 테마로 하는 게임 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했다.

단순한 게임 홍보 모델을 뛰어넘어 게임 속 스토리를 지닌 등장인물로 출연, 아이온의 새로운 테마곡과 춤(소셜 액션), 아이유 인스턴트 던전 등 아이온과 아이유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아이온 고객과 게임 속 콘서트를 통해 곧 만날 것을 예고했다.

아이유는 "포털 검색창에 '이'까지 치면 가장 먼저 '아이온'이 자동 검색어로 뜬다. 그간 '아이온'만 쳐으면 된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이렇게 아이온의 모델이 됐다"며 "게임 테마곡과 콘서트를 유저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4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아이온 4.0' 공개행사에 참석한 아이유가 네 손가락을 펼쳐 신작을 알리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

태블릿 전용신문 '더 데일리' 2년도 안돼 폐간

머독의 승부수 결국 실패

뉴스는 종이 신문으로 봐야 제맛?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태블릿 PC용 신문 사업이 실패했다. 그가 이끄는 뉴스코프는 4일(한국시간) 태블릿 전용 신문 '더 데일리'를 15일 폐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이 신문에 한계를 드러낸 데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창간된 디지털 기기용 신문 '더 데일리'가 창간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을 닫게 됐다.

뉴스코프와 머독은 지난해 2월 약 325억원을 투자해 '더 데일리'를 창간했으며 초기에는 애플 아이패드용으로 개발됐지만 이후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태블릿 PC에서도 구독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층을 확대해 왔다.

'더 데일리'는 아이패드용의 경우 1주일에 99센트, 다른 태블릿은 월 구독료 1.99~3.99달러를 받아왔다.

그러나 태블릿 PC에서만 구독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기사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실패해 결국 폐간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성훈기자

'NHㄴㅎㅅㅎㅂㅎ' 빅히트

NH농협손해보험 기발한 초성퀴즈 이벤트 화제

SNS를 활용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직장인 A씨는 'NHㄴㅎㅅㅎㅂㅎ'이라는 한글의 초성만 적힌 버스 광고를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됐다.

이 광고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광고에 그치지 않고 초성 이벤트를 마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초성을 검색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NHㄴㅎㅅㅎㅂㅎ'을 검색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를 확인해보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진행하는 초성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농협 이벤트는 한글 초성 정답을 맞힌 후 카드 뒷면에 숨어있는 1만 개의 경품을 찾아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처음 이벤트 참여 시에는 카드를 뒤집을 수 있는 기본 포인트 1회가 제공되고, 포인트 전량 소진 시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한 다양한 SNS를 통해 이벤트 정보 공유로 추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또 농협손해보험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 작성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어 다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은 이처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참고할 방침이다. /김지성기자

전셋값으로 '내집 마련' 굿찬스

김포 한강신도시 '모아 미래도&엘가' 1060가구 분양

모아건설과 모아주택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Ab-10블록에 들어서는 모아 미래도&엘가 1060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6층, 전용면적 84㎡(구 33평형)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수요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 전부를 계약 때부터 입주시까지 나눠내는 반면 모아 미래도&엘가는 계약 때부터 입주 시까지 3.3㎡당 610만~620만원 확정 임대가만 나눠내고 나머지 국민주택기금 8500만원은 입주 5년 뒤(2019년)에 납부한다.

확정 임대가로 계약을 했을 경우 월 임대료는 발생되지 않고 입주 5년 후 국민주택기금 8500만원은 별도로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른 기회비용이 생기는 것이다. 또 발코니 확장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확한금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중도금 대출 시 코픽스 금리(2012년 10월 14일 기준 3.72% 변동) 외에 1~2%의 가산 금리(월 전액 회사가 부담해 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도금 발생일이 2013년 상반기여서 1년간 이자비용만 발생된다.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신도시 내 운유산과 조류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김포 대수로와 연결되는 보행자 동로가 설치된다. 단지 내 생태 면적률도 50%로, 1km의 산책로, 잔디공원 등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한 대신 지상 공간에는 녹지와 조경시설물로 가득하다. 교통도 편리해졌다. 기존 서울~김포 간 48번국도(확장)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통한 수도권 접근이 쉽다. 현재 김포 고촌읍에 모델하우스가 개관 중이며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받고 있다.

한편 모아건설, 모아주택산업은 대한주택보증 기업 신용평가 등급 A+ 건설 기업이다. 20년 동안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문의 031)982-8787 /김지성기자

인기명품 싸게 사려면 이번달이 '찬스'

롯데면세점 31일까지 겨울여행 시즌오프 세일

최대 80% 할인 – X-마스 한정판 프리미엄 패키지 늘려

올 겨울 해외로 출국 떠나 이국적인 연말 풍경을 즐길 계획이라면 면세점 쇼핑의 혜택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다.

롯데면세점이 해외여행 성수기인 연말 시즌을 맞아 '빅 브랜드 시즌오프 세일'에 돌입했다. 오는 31일까지 랑방 등 인기 패션 브랜드들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내놓는다. 본점, 잠실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김포공항점, 김해공항점, 인천공항점 등 전국 8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롯데면세점은 올 한 해 20~30대 남녀 고객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이 화장품인 점을 고려해 인기 뷰티 브랜드를 중심으로 리미티드 아이템과 기획 상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한정상품과 프리미엄 패키지 품목들도 늘렸다.

◆롯데 기고시마 골프 왕운 이벤트

롯데면세점은 올해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우리나라 고객들과 일본인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번 세일에서 소품 종류들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인 고객을 고려해 최근 롯데면세점 본점의 샤넬과 프라다 매장을 새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세일에는 빅 브랜드들의 할인율이 높다. 셀린 닥스 등은 최대 80%까지 값을 내린다. 콜스미스 마쏘나 막스마라는 최대 60%, 에트로·랑방 멀버리 고치 지미추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프라다·구찌 미우미우·아르마니 버버리 마크제이콥스 펜디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도 최대 30% 가격을 낮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행사 기간을 더 풍성하게 할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매 고객을 추첨해 15명(동반 1명)에게 롯데 자이언츠 기고시마 캠프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31일까지로 롯데면세점 전 점에서 미화 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이면 롯데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이정민 마케팅팀장은 "올 겨울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과 남은 연차 휴가를 쓸 직장인들을 위해 결산 세일을 준비했다"며 "연말에 진행되는 그 어느 나라 세일 행사보다 혜택이 풍부해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www.lottedfs.com

/김효순기자

곰탕·육포세트 30% 할인

강강술래 파격 행사 실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 씀씀이가 커진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과 갈비및 쇠고기육포 선물세트 30% 할인에 덤까지 증정하는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곰탕 대용량(800ml-5팩-15인분) 선물세트는 30% 할인된 4만39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육포 3봉(1만8000원)을 무료 증정한다. 소용량(350ml-5팩-10인분) 세트도 2만6600원에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며 육포 2봉(1만2000원)을 준다.

소용량(6입) 육포 선물세트는 30% 할인된 2만8000원에 선보이고, 곰탕 1팩(350ml, 6300원)을 추가 증정한다. 대용량(12입) 육포 선물세트도 30% 할인된 5만4600원이다. 구매 시 곰탕 2팩(350ml, 1만2600원)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모든 매장에서도 곰탕이나 육포 선물세트 구매 시 30% 할인 및 추가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늘푸름 원점은 50% 할인 행사 진행).

강강술래의 곰탕과 육포는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최첨단 위생시설에서 방부제, 색소, 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고 생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특히 사골을 푹 우려낸 국물에는 뼈와 관절을 튼튼히 하는 교질 성분과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솔로대첩'미팅 참가직원 K2코리아 유급휴가 준다

최근 SNS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성탄절 전야 게릴라 미팅 행사인 '솔로대첩'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솔로대첩'에 참가하는 싱글 직원들에게 '풍근' 휴가를 주는 회사가 등장했다. 아웃도어브랜드 K2코리아는 최근 사내 미혼남녀들에게 24일 하루 유급휴가와 함께 당일 입고 갈 수 있는 다운재킷을 제공하고, 커플 성사 시 데이트비용 10만원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소셜데이팅 기업 이음도 솔로대첩 행사에 맞춰 24일 전직원 유급휴가를 결정했다.

솔로대첩은 한 페이스북 회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즉석 미팅 행사.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남성은 흰색 옷, 여성은 빨간색 옷을 입고 집결한 뒤 양편에 대기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달려가 손을 잡으면 되는 방식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웅진플레이도시 홈피가면 선물 '펑펑'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다양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

9일까지 웅진플레이도시 홈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소망을 남기는 고객 중 총 2012명을 추첨해 워터파크&스파, 스키&보드, 눈썰매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또 12일까지 웅진플레이도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산타에게 편지를 쓰면 100명을 추첨해 핀란드 산타클로스 중앙우체국에서 보내주는 산타의 답장과 캘린더, 웅진플레이도시 이용권을 선물로 준다. 이밖에 21일까지 '산타의 선물' 이벤트를 실시, 매주 40명에게 산타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이벤트 당일 워터파크&스파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고객 우대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종강파티 1+1'을 이용하면 대학(원)생은 워터파크 또는 스키 등 1인 가격에 2인이 이용할 수 있다. 3인 가족 이용권을 2만9900원에 내놨다. 웅미 고객은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40% 할인해준다. 문의 www.playdoci.com

/박지원기자

칼퇴 없는 직장인의 솔로탈출 방법? '소셜데이팅' 이 진리!

시간공간 제약 없는 신개념 소개팅, 미혼 직장인에게 안성맞춤

미혼남녀의 외로움이 짙어지는 겨울. 29세의 대기업 회사원 이선영(가명) 씨는 "엄마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한다. 20대 마지막 해이지만 야근이나 회식 등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나기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노총각, 노처녀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서른을 앞둔 미혼남녀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급해지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짝을 찾아야 할까. 29세의 디자이너 김정희(가명) 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비신랑을 만났다.

김 씨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하니 연애를 체념했었지만, 친구의 소개로 소셜데이팅 앱 '이츄'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시작은 반신반의였다. 온라인 만남에 선입견은 없었지만, 조건만 나열된 프로필로 사람을 고른다면 결혼정보업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김 씨는 프로필 작성 과정에서 곧바로 안심했다. 기본적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책, 영화, 성격 분석, 라이프 스타일 등 정서적인 공감대를 강조한 항목 때문이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소개팅보다 입체적으로 상대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동원 이츄 팀장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결혼정보업체 가입 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미혼들은 소셜데이팅을 선호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연을 모색한다면 올 연말을 혼자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섹시팝 크리스마스 란제리로 HOT하게!

크리스마스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연인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기념일 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성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연인과 함께 떠날 여행을 준비하거나, 데이트 장소를 물색한다. 풍선과 촛불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한다.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저녁을 위해 맛있는 메뉴를 정한다.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가 끝난 것인까? 뭔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연인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크리스마스 란제리라면 유해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섹시팝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한정판 란제리를 선보인다. 오직 12월에만 볼 수 있는 레어 아이템이다.

크리스마스만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섹시 란제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산타걸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크리스마스 코스튬부터 최고의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바니걸 코스튬,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스루 슬립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궈주는 란제리가 가득하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그동안 감춰왔던 나만의 섹시함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섹시팝 크리스마스 란제리 36종은 티켓몬스터(www.tmon.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10% 할인된 가격에 크리스마스 코스튬, 쉬폰 슬립세트, 티팬티, 스타킹 등을 선보이며 3개 구매고객에게는 섹시 팬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춥다고 패션 포기하지 말자, 보온&스타일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연일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무엇보다 따뜻한 옷이 최고다. 도톰한 코트나 기모가 가득 들어간 티셔츠, 바지라면 추운 날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외출을 해야 할 때면 늘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런 따뜻한 의류들은 생각보다 스타일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소재나 디테일을 유심히 살펴보자. 분명 얇지만 보온성이 높은 소재이면서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디자인이 있기 마련이다.

티켓몬스터(www.tmon.co.kr)에서는 스타일을 살리는 따뜻한 겨울 의류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기모 안감이 되어 있는 후드티셔츠, 맨투맨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는 어떨까. 두껍지 않고 가벼운 신기모 소재는 옷의 볼륨감은 낮추면서 보온성은 높여준다. 또한 3중박음질로 옷의 변형을 막아주어 몸에 딱 맞는 핏(fit)을 연출할 수 있다.

기모 맨투맨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는 13,900원부터, 기모 후드티셔츠는 15,900원부터 판매하며 85종의 다양한 스타일의 티셔츠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겨울 아우터도 빠놓을 수 없다. 티켓몬스터는 연예인이 선호쇼핑몰인 이로이(www.uroi52.com)의 2012년 겨울 신상품도 선보인다. 남성용코트, 기나긴 야상점퍼, 니트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스타일리쉬한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동안 추워서 패션을 포기했다면, 패션 때문에 살이 에이는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면, 티켓몬스터를 방문해보자.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따뜻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리는 최고의 겨울 의류를 만나볼 수 있다.

대장암 가족력 있다면 40세부터 검사

서남병원 조기 건강검진의 올바른 방법과 프로그램

암 질환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40대 이후에 급속도로 발병하고 있다. 하지만 암 질환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다. 조기 건강검진의 올바른 방법과 서남병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효과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가족에게서 발견됐던 질병(암), 본인의 흡연이나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계있는 질환에 대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서울시 서남병원 건강증진센터 권은미 센터장(호흡기내과 교수)은 "대장내시경은 일반적으로 50세부터 시행하지만, 가족 중 대장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흡연자나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 등 호흡기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 저선량 폐 CT를 찍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런 경우 조기 폐암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기본 검진 항목 외에도 여성의 경우 유방 X선과 유방 초음파, 갑상선초음파를 병행 검사하는 것이 좋다.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와 같은 심장 정밀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것도 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서남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상담 시 전문 간호사가 수진자의 위험인자와 나이를 고려한 검진 프로그램을 설명해준다. 특히 차기 검진부터는 불필요한 검사 등 중복된 검사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으로 맞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화의료원 교수진이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 결과의 정확도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 일반 고가 검진센터에 비해 절반 가격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 검진 시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단순 검진 프로그램이 있어 전체 검진 항목이 아닌 2~3가지의 암 진단에 필요한 선택 검진을 할 수 있다. 문의 02)6300-7700~2

/김민지기자

■ Simple 건강검진 프로그램

구분	검사 항목
간기능	종양표지자 + 복부초음파
간 정밀	종양표지자 + 간염검사 + 복부초음파
간 & 대장 정밀	종양표지자 + 복부초음파 + 수면대장내시경
흉부 & 대장 정밀	종양표지자 + 저선량 폐 CT + 수면대장내시경
흉부 & 간 정밀	종양표지자 + 복부초음파 + 저선량 폐 CT
갑상선 정밀	종양표지자 + 갑상선 혈액검사 + 갑상선초음파
유방 & 갑상선 정밀	종양표지자 + 유방초음파 + 갑상선혈액검사 + 갑상선초음파
유방 & 부인과 정밀	종양표지자 + 유방초음파 + 부인과초음파
폐 정밀	종양표지자 + 저선량 폐 CT
복부 정밀	종양표지자 + 복부 골반 CT
종합혈액검사	종양표지자 + 일반혈액 + 고지혈 + 간기능 + 신장기능 + 췌장기능 + 갑상선 기능 + 심혈관질환위험도 + 뇌졸중 위험도

국내 최대 아웃도어파크 탄생

길동 개소 … 원스톱쇼핑 OK

국내 최대 규모의 아웃도어파크 매장이 최근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문을 열었다.

총 7개 층(지하 1층~지상 6층)에 바이크와 아웃도어, 오토캠핑에 모든 것이 구비돼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1층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를 비롯해 오클리, 헨겔•레키 스타, 썬도 등 다양한 수입 잡화 브랜드가 자리하고 있다.

2층은 몬츄라•아크테릭스•마무트•하그로프스 등의 명품 의류 매장과 잠발란•로바•킨•파이브텐•마누 등 수입 등산화 코너로 구성됐다.

3층에는 쉐펠•빌로스•엑스바이오닉•론테인 등 의류 매장과 오스프리•도이터•그레고리 등 명품 배낭 코너를 입점시켰다. 4층은 오토캠핑 매장으로 콜맨존•스노우피크존•MSR존으로 꾸며 오토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놨다.

바이크 매장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등 두 개 층을 사용한다.

지하 1층에서는 MTB로 유명한 메리다와 산타크루즈•센츄리온은 물론 로드 및 하이브리드, 생활 자전거, 다양한 부품과 액세서리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고급 카페처럼 꾸민 5층 매장에서는 고급 MTB와 로드 자전거를 전시 및 판매한다. 특히 바이크 관련 책자를 비치,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다.

아웃도어 파크 관계자는 "앞으로 아웃도어, 바이크 마니아들을 위해 등산 동호회 지원, 바이크 피팅 및 정비 교육,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가영기자

학습 과정·결과 실시간 체크!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 론칭… 사업자 모집
내방형 오프라인 학습공간…소자본 창업도 가능

윤선생영어교실과 윤선생영어숲을 통해 스마트 맞춤학습을 구현하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교습소·공부방 사업인 '우리집앞영어교실'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우리집앞영어교실'은 회원들에게 한층 더 가까운 위치의 상가 또는 가정집에 교습소 혹은 공부방 형태로 개설되는 내방형 오프라인 학습 공간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기존 영어 전문학원을 오픈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들었다면 '우리집앞영어교실' 공부방을 자택에 개설할 경우에는 보증금 200만원에 인테리어 및 시설비만 소액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 오픈할 수 있다. 자택이 아닌 상가에 교습소 형태로 개설할 경우에는 여기에 임차 보증금만 추가하면 된다.

일하는 시간 대비 높은 수익을 … 시간 근무하는 데 반해 교습소·공부방 원장의 경우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도 개인 능력에 따라 직장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그룹과외 형태로 교습소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교사라면 자체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우리집앞영어교실'은 33년 영어교육 노하우를 지닌 윤선생의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체 개발한 지능형 맞춤학습시스템(SMART BEFLY) 사용으로 학습 효과뿐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타사의 스마트 학습매체가 대부분 플레이어 기능에 국한되는 반면 SMART BEFLY는 회원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학습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라고 윤선생 측은 설명했다. 또 회원의 학습 집중도에 따라 교사가 '집중'을 요구하는 알림 메시지를 실시간 보낼 수 있어 교사의 업무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선생 권보기 사장은 "사교육에 대한 고객 니즈가 점차 개인화·고급화·소형화로 바뀌면서 아예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습소·공부방 사업을 시작한다"며 "고객 니즈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콘텐츠와 학습매체·학사 관리 프로세스로 충분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선생은 12월부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집앞영어교실 사업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1588-0594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우리집앞영어교실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날짜	시간	장소	개설희망지역
수도권 동부	12월14일(금)	오전 10시	윤이빌딩 (강동구 성내동)	서울/강남/서초/강동/송파/광진/금천/구로/영등포/동작/용산/관악
	12월21일(금)	오전 10시	강남 허재관 (구로구 신도림동)	경기(광주/성남/하남/용인/오산/안성/평택/이천/여주) 강원도
수도권 강북	12월13일(목)	오전 10시	강북 허재관 (도봉구 창동)	서울(마포/은평/서대문/종로/중구/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중구)
	12월27일(목)	오전 10시	강북 허재관 (도봉구 창동)	경기(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포천/동두천/양주/가평/양평/연천/고양/파주)
수도권 서부	12월14일(금)	오전 10시30분	인천 부조로얼관론 본관(2층)	경기(인천/과천/군포/수원/안양/의왕/화성/안산/김포/부천/시흥/광명) 제주도
	12월21일(금)	오전 10시30분	수원 무소기업지원 센터(7층)	

※ 우리집앞영어교실 사업 설명회는 개설 희망 지역에 관계 없이 참석 가능하며, 전화(1588-0594)로 사전예약 한 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영어상식

유행어 '우리 헤어지자'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인기 개그프로그램 고녀의 유행어인 '우리 헤어지자'라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영어로 "break up"이라고 표현하며,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요구할 때는 Let's를 사용해 "~하자"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 헤어지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Let's break up'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I hear that Lisa and Mary broke up. (존과 리사가 헤어졌대)

예) Even though we've broken up, let's still be friends. (헤어지더라도 친구로 지내자)

* 자료제공: 윤선생영어교실(www.yoons.com)

윤스닷컴 이벤트 페이지 가면 연극 '피터와 늑대' 40% 할인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음악 연극 '피터와 늑대'의 티켓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윤스닷컴(www.yoons.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출력할 수 있으며, 쿠폰 사용 시 정가보다 40% 할인된 금액(1만5000원)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화 예매한 뒤 공연 당일 출력한 쿠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할인 혜택은 1매 4인까지 받을 수 있다. 공연은 내년 1월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진행된다.

'피터와 늑대'는 호기심 많은 소년 피터와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그려낸 연극으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키봇2' 가입하면 선물이 와르르~

어린이 교육용 로봇 '키봇2'가 크리스마스를 풍성하게 한다.

KT는 '키봇2' 출시 1주년을 기념해 기존 및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즐겁고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줄 다양한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KT는 키봇2의 기존 고객에게 전국 유명 키즈 테마파크 이용권을 제공해 출시 1주년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이벤트는 키봇2 이용 고객(성인 1명, 유아 1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를 2명까지 초대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고객이 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키즈테마파크 초대권'을 가지고 6개의 테마파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신청하면 21일부터 25일 사이 이용 가능한 테마파크 이용권을 선착순 900명에게 제공한다.

한편 25일까지 전국의 올레플라자·올레홈 매장(아파트 단지 내 매장), 대형마트 내 올레매장 및 올레닷컴, 스마트홈 고객센터(060-237-7979)에서 키봇2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에버랜드 4인 가족 자유이용권, 코엑스 아쿠아리움 4인 가족 입장권, 이랜드 외식 상품 10만원권 중 고객이 원하는 한 가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오케스트라 단독 콘서트

JYJ **김준수**가 아이돌 가수 최초로 전곡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는 29~31일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공연의 큐시트를 공개하며 "아이돌 중 올 라이브로 단독 발라드 콘서트를 연 사례는 없었다. 진정성 있는 가창력으로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면 CF모델까지 꿰찼다

배우 **류승룡**이 통신사 카드 광고 모델에 이어 라면 CF까지 섭렵했다.

팔도는 4일 "'남자라면' 모델에 류승룡을 발탁해 10월부터 TV 광고를 송출한다"면서 "제품 이름에 걸맞은 진하고 화끈한 이미지를 보고 캐스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승룡은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회오리바다'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동덕여고에 1000만원 기부

가수 **미아유**가 모교인 동덕여고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4일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 발전 기금을 냈으며 기금은 도서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미아유는 기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최근 나온 동덕여고 교지에 관련 소식이 실리며 외부에도 알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강호동·신동엽과 한솥밥

전 KBS아나운서 **전현무**가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SM C&C는 4일 "체계적이고 글로벌한 매니지먼트 지원을 바탕으로 전현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이 회사에는 강호동·신동엽·김병만·이수근 등 개그맨과 배우 장동건·김하늘·김민종 등이 소속돼 있다.

무거운 이미지 벗고 싶었죠

망가지는 캐릭터에 끌려… 버라이어티쇼 나가면 뭔가 보여줄 것

영화 '자칼이 온다' 김재중

김재중(26)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자칼이 온다'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했다. 연예계 생활 10년째에 느끼고 있는 최근 그는 배우로서 매우 당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흥행보다 더 값진 희망을 확인했다.

#연기의 매력?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보스를 지켜라'와 '닥터 진' 등 두 드라마가 흥행한 것에 비해 이번 작품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관례를 깨고 영화가 이미 개봉한 뒤지만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에 성의를 보였다.

"배우로서 더 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출연을 고민하던 다른 작품도 있었지만 이 영화 속 캐릭터의 매력이 컸죠."

전설적인 여자 킬러(송지효)에게 납치당하는 한류스타 최현을 연기했다. 멋진 외모와 달리 허술한 구석이 있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없이 망가지기도 한다. 무대에서는 물론 이전 드라마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닥터 진'의 김경탁을 맡았을 때 '보스를 지켜라'에 이어 또 무거운 역할이어서 부담이 컸어요. '또 이런 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최현은 심각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밝고 쾌활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와 JYJ의 멤버로 이사이 최정상의 위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배우 김재중으로는 스스로 포지셔닝을 달리했다. 많은 가수 출신 스타들이 타이틀롤을 맡아 연기에 데뷔하는 것과 달리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영리한 선택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당연히 비중이 크고 시청률이 높을수록 좋죠. 그러나 배우로 긴 시간을 가야 한다면 제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닥터 진'의 김경탁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죠. 대작의 주인공을 맡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연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 창구 찾아"

최근 전 소속사와 3년4개월간 이어오던 전속계약 분쟁을 끝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지만 당장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이어가며 활동 환경이 바뀌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봐왔던 도움을 기억하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해외 팬미팅을 다니며 콘서트를 내고 월드투어도 개최했죠. 아직 어리고 활동할 시간이 많다고 위안하지만, 그럼에도 방송 출연 제재를 당하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에요. 팬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잃은 것과 같죠."

"활동이 줄어들수록 우리를 응원하는 팬들이 더 위축되는 것 같았다"며 쉴 새 없이 활동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미 세 멤버가 상당수의 곡 작업을 했으며, 내년 JYJ 앨범을 발표하고 다시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곡도 실릴 수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화, 드라마, 노래 외에도 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공연 연출, 다른 가수의 곡 작업, 연극과 뮤지컬 출연도 하고 싶어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은 마음만 먹으면 2주 만에 딸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버라이어티쇼에 나간다면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하하."

/유순호기자 sura@metroseoul.co.kr
사진/김상진 이든드케이블 디자인/박선경

할리우드 톱스타들 방한 러시

주상욱 '눈부신 명품복근'
배우 주상욱이 탄탄한 복근을 뽐내 화제다. 한 속옷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인 그는 광고 책트를 주제로 한 겨울 시즌 화보를 4일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비지 위로 강렬한 붉은색 속옷을 노출해 장엄먹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박진원기자

"한국이 亞 홍보 중심"… 톰 크루즈·빈 디젤 등 줄줄이

2013년에도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한국 나들이는 계속된다.

웬만한 국내 배우보다 더 친숙한 톰 크루즈는 내년 1월 신작 '잭 리처'로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여섯 번째 내한이며, 지난해 12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로 왔던 게 가장 최근이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고독한 안티 히어로 잭 리처로 변신해 악당들을 상대로 일당백의 활전을 펼친다.

정치인에서 다시 근육질 액션스타로 돌아온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라스트 스탠드'를 알리기 위해 2월 방한할 예정이다. 201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것을 비롯해 몇 차례 내한한 적은 있지만, 영화 홍보를 위한 한국 나들이는 처음이다.

김지운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잘 알려진 '라스트 [illegible]'에서 슈워제네거는 마약 밀수업자에 맞서는 시골 보안관으로 출연한다.

민머리 터프가이 빈 디젤도 '패스트 앤 퓨리어스 6'의 개봉에 맞춰 5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13년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내한으로, 2002년 '트리플 엑스'를 들고 왔었다.

한 직배사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권 홍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라며 "트렌드에 민감하므로 전 세계 흥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의 기능이 강한 데다 관객들의 호응도 뜨거워,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앞다퉈 오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빈 디젤 / 톰 크루즈 / 아놀드 슈워제네거

'학교 2013' 산뜻한 출발

KBS2 새 월화극 '학교 2013'가 현 시대의 학교 문제에 돌직구를 던졌다.

3일 방송된 첫 회는 학생들의 흡연은 물론 학교 폭력으로 얼룩진 교실 안 풍경과 도저히 사제 관계로 보이지 않는 학생과 선생의 날선 대립을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 눈길을 끌었다.

승리고등학교 최하위 학급인 2학년 2반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 5년차 정인재(장나라), 학교 '짱'인 오정호(곽정욱)을 비롯한 학생들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배우들의 연기도 실감났다는 평가를 받은 이 드라마는 시청률 8%를 기록, MBC '마의'에 이어 동시간대 2위에 오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박준현기자 [illegible]

가요계 '女봐라'

이하이 11월 월간차트 1위
톱10에 여성가수 무려 7팀

가요계 여성 파워가 추남 트렌드를 잠재웠다.

남성 발라드 가수가 강세를 보이는 11월에 여자 가수들이 경합악을 펼치며 대중음악 시장의 전통을 바꿔 놓았다.

신예 스타 이하이가 돌풍의 중심에 섰다.

이하이는 음원 사이트 멜론에 4일 공개한 11월 월간 차트에서 데뷔곡 '1, 2, 3, 4'로 정상을 차지했다. 1960년대 흑인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레트로 소울 장르의 곡으로, 국내에는 생소한 음악을 신인으로서 완벽하게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이하이는 25일간 1위를 [illegible] 지 않으며 올해 신인 중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하이의 뒤를 이어 씨스타의 소유가 힙합 듀오 긱스와 함께 부른 '오피셜리 미싱 유, 투'가 월간 차트 2위에 올랐다.

올해 데뷔한 또 다른 거물급 신인 에일리도 이름에 기세했다. 에일리의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보여줄게'는 특유의 힘 넘치는 가창력과 이국적인 목소리로 큰 인기를 얻었다.

또 월이 심쉬치의 권정열과 함께 부른 '귀여워', 미스에이의 '남자 없이 잘 살아', 가인의 '피어나', 현아의 '아이스크림' 등 여자 가수가 부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7~10위를 차지했다.

톱 10에는 무려 7팀이 여자 가수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남자 가수로는 '버스커버스커'의 케이윌, '[illegible]'를 부른 '슈퍼스타K 4' 출연자인 로이킴과 정준영, [illegible]를 부른 프라이머리 등 세 팀만이 10위권에 머물며 체면을 지켰다.

/[illegible]기자

소유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3 What are you doing?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86. 어디에 가는 중이에요?
187. 저는 집에 가는 중이에요.
188. 몇 시에 돌아와요?
189. 제가 몇 시에 돌아올지 잘 모르겠어요.
190.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86 Where are you going?
187 I'm going home.
188 What time are you coming back?
189 I'm not sure what time I'm coming back.
190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86~19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어디에 are you going, Henry?
B I'm going home now.

정답 Wher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m going [home / to the market] now.

2 I'm not sure what time [I'm / he's] coming back.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시리즈입니다.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Research shows that more small businesses are ______ to lease their office equipment.
(A) directing (B) supporting
(C) requiring (D) choosing

02 Elena Gallegos is a Barcelona-based architect known for ______ incorporating practical and aesthetic elements in her designs.
(A) taste (B) tasteful
(C) tastefully (D) tasting

01. 연구에 따르면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사무 장비를 임대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
해설 …(D) choosing을 써야 한다.
어휘 lease 동 임대하다 office equipment 사무 장비 direct 동 지시하다 support 동 지지하다, 후원하다 require 동 요구하다
정답 (D) choosing

02 엘레나 갈레고스 씨는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건축가로 디자인에 실용적인 요소들과 미학적인 요소들을 멋있게 조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설 빈칸은 동명사인 incorporating을 앞에서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부사인 (C) tastefully(멋있게)를 써야 한다.
어휘 architect 명 건축가 incorporate 동 통합하다 aesthetic 형 미학적인, 감각적인 element 명 요소, 성분
정답 (C) tastefully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주변 대상 묘사하기

주변 대상의 위치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사진 뒤쪽에	On both sides of the picture 사진 양쪽에
In front of ~ ~ 앞에	Next to ~ / Beside ~ ~ 옆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wo pictures are posted over the whiteboard.

I can see two red posters **on both sides of the picture.**

In front of the students, something is being presented on the screen.

Next to the teacher, a projector is turned on.

Tip 사물+동사의 -ed형

"라디오DJ 길어야 1년 소리 들었는데…"

4일 여의도 MBC에서 열린 … 수여식 … 최양락이 … 미소 짓고 있다. 그는 10년간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진행한 공로로 브론즈 마우스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브론즈 마우스' 수상 개그맨 최양락 "20년 간다"

정치 풍자의 1인자 개그맨 최양락이 아홉 번째 '브론즈 마우스'의 주인공이 됐다.

4일 여의도 MBC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그는 "라디오를 처음 할 당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길어야 1년'이라고 말했지만 벌써 10년이 됐다"면서 "10년은 어려지만 20년은 금방 간다. 10년 후 (골든 마우스 수여식에서) 또 봤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브론즈 마우스는 10년 이상 유지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진행한 DJ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5년 연속 20위 이내에 랭크된 프로그램의 진행자 중 프로듀서 20명 이상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다. 최양락은 앞서 2002년 4월부터 MBC 표준FM(95.9MHz)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DJ를 맡아 진행해 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부인 팽현숙은 "성격 나쁜 남편과 10년 동안이나 함께 라디오를 진행해준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2010년 골든 마우스 수상자 박철수는 "내 경험상 10년은 할만 하지만 20년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 MBC 라디오를 빛내줘 고맙다. 30년까지 쭉 가는 DJ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남겼다.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미니 인터뷰에서 최양락은 전 대통령들의 성대모사로 이뤄지는 코너 '대통퀴즈'에 대해 "청취자들로부터 '너무 야당 친화적인 것 아니냐'는 항의도 듣지만… 우리는 꾸준히 집권당과 대통령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코미디가 발전해야 나라도 발전한다. (정치 풍자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 새롭게 개편될 라인업도 귀띔했다. 그는 "지금 우리 출연진은 문재인·박근혜 후보 모두 모사가 가능한데, 선거 기간 중에는 방송이 불가능해 입이 근질근질하다"면서 "대선이 끝나면 두 정치인을 소재로 한 콩트를 신컷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그는 "2009년 초 슬럼프가 찾아왔을 땐 하차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수상도 하고 다시 내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온 듯 기쁘다"고 말하는 한편 "골든 마우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마우스를 준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내려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디테일한 아줌마 연기 표현기회 부족했어요"

'울랄라 부부' 신현준 종영소감

배우 신현준이 KBS2 월화극 '울랄라 부부'를 끝낸 소감을 밝혔다.

극중 아내 나여옥(김정은)과 영혼이 바뀐 고수남을 맡아 공감 가는 아줌마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3일 "디테일한 아줌마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성숙한 부부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종영한 이 드라마는 초반엔 부부의 영혼 체인지를 공감가게 그려내 인기를 모았으나 점차 진정한 부부애를 보여준다는 기획 의도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신현준과 김정은의 코믹 연기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영화 '맨발의 기봉이'와 '가문의 영광' 시리즈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지난 몇 년간 주로 코믹 연기를 펼쳐오고 있는 신현준은 "질문을 때리만 지금과 같은 연기는 하지 못했을 거다. 이전에 무거운 연기를 워낙 많이 했기에 이젠 가벼운 연기에 끌린다"고 코믹 연기에 애착을 드러냈다.

/박진영기자

이동환 PGA Q스쿨 우승 감격

아시아 첫 단독 1위 · 고교생 김시우 역대 최연소 통과 기록

이동환

김시우

이동환(25·CJ오쇼핑)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에서 단독 우승을 차지했다.

이동환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골프장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6일째 6라운드 경기에서 버디 8개에 보기 3개를 기록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5언더파 407타의 성적을 낸 그는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제치고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가 PGA 퀄리파잉스쿨에서 단독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의 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공동 1위는 1992년 구라모토 마사히로(일본)가 다른 선수 4명과 함께 기록한 예가 있다.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활약하는 이동환은 2004년 일본 아마추어선수권대회 우승, 2006년 JGTO 신인왕 수상자로 JGTO에서 통산 2승을 올렸다.

고교생 김시우(17·신성고2)는 18언더파 414타로 공동 20위를 기록해 역대 최연소 통과 기록을 세웠다. 17세5개월6일인 그는 종전 기록인 2001년 타이 트라이언(미국)의 17세6개월1일을 약 한 달 정도 앞당겼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PGA 투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시우는 18세가 되는 2013년 6월 28일 이전에는 최대 12개 대회까지만 출전 기회를 얻는다.

이외에 재미교포 리처드 리가 공동 4위(23언더파), 재미교포 박진이 공동 7위(22언더파)에 올라 내년 PGA 투어에는 최경주·양용은을 비롯해 존 허·케빈 나·위창수·노승열·배상문 등 한국계 선수 11명이 활약하게 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다저스 협상 지지부진"

12월 마감시한 앞두고 난항

류현진(25·한화·사진)이 LA 다저스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LA 타임스와 야후 스포츠는 4일 "(류현진과) 계약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현재 협상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라는 네드 콜레티 다저스 단장의 인터뷰를 전하며 양자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다.

양자가 벌이는 협상은 12일 끝난다.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콜레티 단장과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스토브리그에서 잭 그레인키 등 정상급 선발투수를 영입하고자 공을 들인 콜레티 단장은 윈터미팅 이후 류현진의 계약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보라스의 전술에 놀아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도장을 찍겠다는 얘기다.

다저스는 한 발 나아가 류현진과 계약을 포기하는 대신 아니발 산체스 등 다른 투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라스는 류현진이 한국에서 2년 후 완전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면 몸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논리로 호락호락 사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김민준기자

한국 WBC서 네덜란드와 첫 경기

2013년 3월 열리는 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에서 한국 대표팀이 네덜란드와 첫 경기를 치른다.

WBC 조직위원회가 4일 발표한 대회 일정에 따르면 네덜란드·호주·대만과 B조에 편성된 한국은 대만 타이중의 인터컨티넨털구장에서 네덜란드(3월 2일), 호주(4일), 대만(5일)과 차례로 격돌한다.

1라운드 2위까지 2라운드에 진출해 A조(일본·쿠바·브라질·중국) 1, 2위와 대결한다. 2라운드 경기는 3월 8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다.

2라운드 순위 상위 두 팀은 4강에 올라 3월 18일부터 아틀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준결승을 벌인다. 대망의 결승은 3월 20일 열린다.

/김민준기자

김태균 불우이웃 돕기 1억 쾌척

김태균(30·한화·사진)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열매 대전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김태균은 5일 사랑의열매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다. 야구 선수로는 김태균이 처음이며 스포츠 선수 출신 중에서는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김태균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거금을 선뜻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최고 타자 박병호 "여보 사랑해" 4일 열린 일구회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을 받은 박병호가 아내에게 하트를 날리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국내 첫 독립 야구단인 고양원더스의 허민 구단주가 일구대상을 수상했고, 일본 프로야구 다승 1위(17승)를 기록한 장원삼이 최고 투수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LIG손보 프로배구 2위 껑충

LIG손해보험이 러시앤캐시를 꺾고 남자 프로배구 2위로 올라섰다.

LIG손보는 4일 열린 NH농협 2012-2013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러시앤캐시를 3-0 (25-21, 25-21, 25-17)으로 꺾었다. 승점 16점이 된 LIG손보는 2위 대한항공과 동점을 이뤘으나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 2위로 치고 올라섰다. LIG손보는 까메호 드루티(21득점)를 주축으로 김요한(10득점), 이경수(12득점) 등 삼각편대가 고른 활약을 펼쳐 연쇄적인 공격을 이끌었다.